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1136

2011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다의어 RUN의 의미 분석

- *Run* and its Polysemy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인 영

다의어 RUN의 의미 분석

- *Run* and its Polysemy -

201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인 영

다의어 RUN의 의미 분석

- *Run* and its Polysemy -

지도교수 최 영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인 영

김인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남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희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영주 (인)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0

Ⅰ.서론····· 1

Ⅱ.동사 의미 분석····· 2

Ⅲ.원형이론

1. *라보프*의 실험····· 16
2. *로쉬*의 실험····· 18

Ⅳ.환유와 은유

1. 환유····· 21
2. 은유····· 24

Ⅴ.RUN과 인지의미론적 접근····· 28

Ⅵ.결론 ····· 35

참 고 문 헌····· 37

표 목차

<표 1-1> 범주의 원형적인 보기 ····· 19
<표 2-1> 은유의 전통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 ····· 24
<표 2-2> 인생과 여행의 상응관계도식 ····· 25

그림 목차

<그림1-1> 반지의 의미 확장 ····· 3
<그림1-2> RING의 원형적 도식 ····· 4
<그림2-1> over의 도식1····· 5
<그림2-2> over의 도식2····· 7
<그림2-3> over의 도식3····· 7
<그림2-4> over의 도식4····· 8
<그림2-5> over의 도식5 ····· 8
<그림2-6> over의 도식6····· 9
<그림2-7> over의 도식7····· 9
<그림2-8> over의 도식8····· 10
<그림2-9> over의 도식9····· 10
<그림2-10> over의 도식10 ····· 11
<그림2-11> over의 도식11····· 11
<그림3-1> 연속체의 모호한 가장자리····· 16
<그림3-2> 컵과 머그잔 사이의 관계····· 17
<그림3-3> 새다움의 등급····· 18
<그림4-1> 도식의 개념적 은유····· 26
<그림4-2> '결혼은 감옥'의 도식····· 27
<그림5-1> RUN의 원형적 그림····· 29
<그림5-2> RUN의 의미망····· 34

ABSTRACT

An analysis of semantic structure of Run

- *Run* and its Polysemy -

Kim In Young
Advisor : Prof. Young ju Choi.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hen we study English is to learn the meaning of the words. Although verb 'run' is used in various situations, interrelation among them is ambiguous.

In other words, I try to examine that the meaning of the words can't be defined as itself but connected with cognitive domain to explain them properly. So, I want to show the profound relations of the words which rarely seem to be similar though it can't reveal all of the polysemy phenomenon. Also it can be explained natural way by the semantic network approach.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nal semantic structures of a polysemous word 'run' to verify the validity of semantic network approach to polysemy with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linguistics.
Furthermore, it is shown that all of its meanings are closely interwoven through human cognitive mechanism such as prototype theory, metaphor, and metonymy.

This paper consists of introduction, prototype theory, metaphor, metonymy, an analysis of semantic structure of 'run' and conclusion.

Ⅰ. 서 론

영어문장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동사의 연구는 다른 구성성분의 연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들어서 인지언어학이 발전하면서 각 낱말이 갖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다루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문법에서는 이 여러 가지의 뜻 사이의 관련성과 뜻과 구조적 특성 사이의 관련성의 파악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영어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동사의 의미를 기술하여 한 동사가 갖는 여러 의미 사이의 관련성을 포착하는데 있다.

즉 낱말의 뜻은 낱말 자체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인지영역과 관련을 지어야만 낱말이 제대로 풀이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수많은 다의어 중의 하나인 RUN의 의미 분석이 다의 현상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줄 수는 없지만 의미망 접근 방식에 의하여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의미들이 실제로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자주 쓰이는 낱말은 대부분 서로 연결된 의미들로 하나의 망을 이룬다'는 인지언어학의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의어(polysemy)를 인지 의미론적으로 접근해 단어나 구조들이 기본을 이루는 원형의미를 갖고 있고 거기에 환유적 확장, 은유적 확장 등을 통해 동사 RUN이 어떻게 의미망을 넓혀 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 동사 의미 분석의 이론적 바탕과 의미의 망을 분석해보고, Ⅲ장에서는 원형이론을 정리하고, Ⅳ장에서는 환유와 은유를 살펴보고, Ⅴ장에서는 인지 의미론적 접근으로 어떻게 RUN을 분석하는가를 보여준다. 제Ⅵ장은 결론이다.

Ⅱ. 동사 의미 분석

1. 이론적 바탕

다의어(Polysemous word)란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이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뜻(meaning)' 또는 '의의(sense)'를 지닌 것으로 이러한 상호의의관계를 총칭적으로 '다의성(Polysemy)'이라고 한다. 다의성은 범주의 원형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인지언어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를 굳혀왔다. 또한 인지언어학에서 다의성을 논의할 때는 의미망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특히 Langacker(1987)가 제안한 망 모형(network model)'은 다의성을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해 준다.

영어에서 빈도수가 높은 기본 어휘에 속하는 낱말은 거의 모두 여러 가지의 뜻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전치사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전치사는 모두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영어 동사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동사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주 쓰이는 동사일수록 더 많은 뜻을 갖는다. 그런데 사전에 실린 뜻을 찾아보면 한 낱말 아래에 실린 하나의 뜻은 다른 뜻과 별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의미로 보인다. 동사 Run의 뜻도 여러 가지로 사전에 주어진 정의를 잘 살펴보아도 주어진 뜻 자체만으로는 여러 뜻 사이에는 관련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동사가 갖는 여러 뜻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 관련성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바탕이 되는 것은 Langacker교수가 개발해 오고 있는 인지문법이다. 인지문법은 더 넓은 인지언어학의 흐름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는 특정한 언어 이론에 대한 이름이다. 인지문법에도 그 자체의 용어, 설명 방법, 그림에 대한 관습이 있지만, 그것은 인지언어학 흐름의 기본 가정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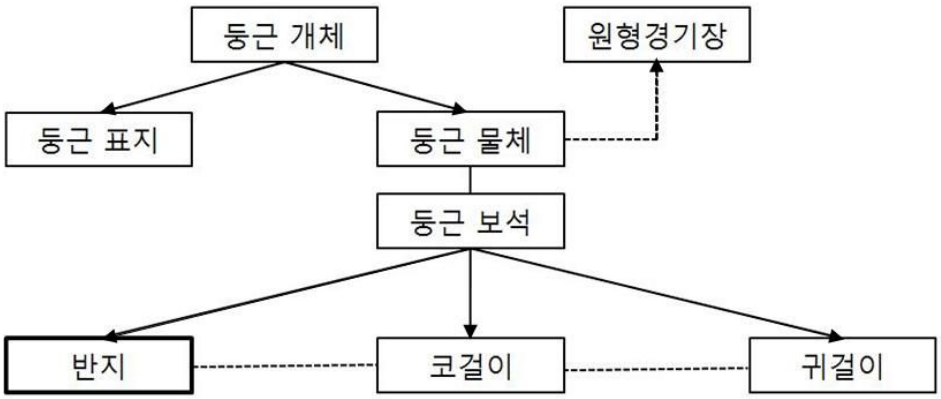
2. 의미의 망

먼저 명사 RING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자. RING의 가장 원형적인 의미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이다. 이 의미는 원형적이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고, 또 사전에도 통상 제일 먼저 실린다. 그런데 이 낱말은 코걸이를 가리키는 데에도 쓰인다. 반지와 코걸이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은 둘 다 둥근 개체이고, 장식품으로 쓰이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크기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낱말로 표현되는 것은 한 의미가 다른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코걸이는 반지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점선은 확장을 나타낸다.)

반지 ----------> 코걸이

<그림1-1> 반지의 의미 확장 (이기동 1995: 3(2))

반지와 코걸이에서 다시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 공통점은 둥근 모양의 장식물이다. 또 여기서 둥근 모양만 추출하고 장식기능을 빼놓으면, 둥근 물체의 개념이 추출될 수 있다. 또 둥근 물체에서 둥근 개념만 포착이 되고, 물체의 개념을 빼면 둥근 흔적 같이 되는데 이것도 RING으로 표현될 수 있다. 둥근 물체와 둥근 흔적에서 보다 추상적인 둥근 개체와 같은 도식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2> RING의 원형적 도식 (이건환 2002:165 그림1)

위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RING이 나타내는 여러 의미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되어서 망 조직을 이루는 점이다. 그러면 이 망 가운데서 어느 것이 RING의 의미가 되는가? RING의 의미는 그림에서 가장 높은 추상적인 도식도 아니고, 망 속의 어느 하나의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RING의 의미는 그림과 같은 전체 망조직과 동일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 가운데서 '반지'의 의미가 가장 원형적일 것이다. 그러나 원형적인 의미만이 RING의 의미가 아니다.

위에서 우리는 한 낱말이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들 의미는 서로 관련된 의미의 망을 이룸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의 하나인 범주화와 관계가 깊다.

또 다른 한 예로 전치사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 가운데 하나이다. 영어를 배우는 모든 외국인이 기꺼이 인정하듯이, 전치사의 다의성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것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은, 어떤 언어의 한 전치사와 연결된 사용들의 범위가 다른 어떤 언어의 어떤 전치사와도 좀처럼 합치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휴가를 보내는 장면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전치사는 on이고, 시골에 산다는 상황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전치사는 in이며, 파티에서 사

람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쓰이는 전치사는 at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직면할 때, 언어 교사들, 교재 저술가들, 그리고 문법 교수법 저술가들은 일반적으로 낙담하여 전치사에 대한 논리 정연한 설명을 제시하기를 포기한다. 전치사의 용법은 관용적이므로 '단지 암기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전치사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다의적인 over에 대한 분석을 예시하겠다. 먼저 전치사는 공간적 의미로 쓰일 경우 한 개체의 공간적 위치를 다른 어떤 개체를 참조로 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Langacker가 도입한 용어를 따르면, 위치가 결정되는 개체는 탄도체(tragector: 약자로 TR)라 부르고 참조적 역할을 하는 개체는 지표(landmark: 약자로 LM)라 부른다. 전치사는 탄도체-지표 관계의 많은 다른 국면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 중요한 구별은 동적인 관계와 정적인 관계 사이의 구별이다. 탄도체-지표 관계가 정적이라면, 전치사는 탄도체의 위치를 지시한다.

over가 쓰인 다음 문장들을 검토해 보자.

(1). (a) The lamp hangs over the table.
(램프가 테이블 위에 걸려 있다.)

(b) The plane flew over the city.
(비행기가 도시 너머로 날아갔다.)

(c) He walked over the street.
(그는 거리를 가로질러 걸었다.)

(d) He walked over the hill.
(그는 언덕 너머로 걸어갔다.)

(e) He jumped over the wall.
(그는 벽을 뛰어 넘었다.)

(f) He turned over the page.
(그는 책장을 넘겼다.)

(g) He turned over the stone.
(그는 돌을 뒤집었다.)

(h) He fell over a stone.
(그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

(i) He pushed her over the balcony.
(그는 그녀를 발코니 너머로 내밀었다.)

(j) The water flowed over the rim of the bathtub.
(물이 욕조 가장자리를 넘쳐흘렀다.)

(k) He lives over the hill.
(그는 언덕 너머에 산다.)

(l) Come over here.
(이리로 건너 와라.)

(m) Pull the lamp down over the table.
(램프를 식탁 위로 끌어 내려라.)

(n) He walked all over the city.
(그는 그 도시를 샅샅이 걸어 다녔다.)

(o) The child threw his toys all over the floor.
(아이는 자기 장난감들을 온 마룻바닥에 내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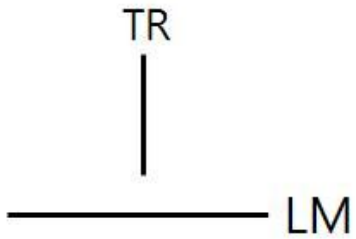
(p) He laid the tablecloth over the table.
(그는 식탁에 보자기를 깔았다.)

(q) He put his hands over his face.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조명원,나익주 1995: 13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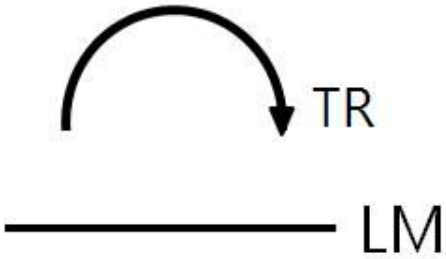
over와 연관된 의미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거의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위의 자료들을 체계화하는 일 -over 가 관련된 의미들을 복합적인 무리를 이룬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는 일- 이다.

위 실례의 첫 문장 The lamp hang over the table에서 over의 외연은 정적인 장소 관계이다. 탄도체(TR)가 지표(LM)와 수직을 이루며 위치해 있지만 접촉하고 있지는 않다.

<그림2-1> over의 도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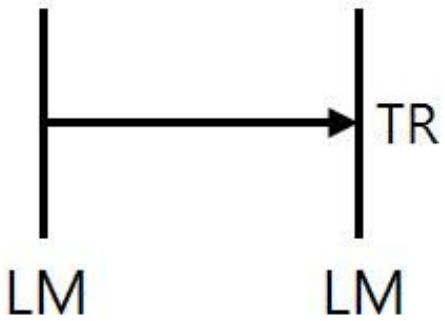


(b)의 문장 The plane flew over the city에서 탄도체는 여전히 지표에 대하여 수직적이며 지표와 접촉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탄도체와 지표사이의 관계가 정적인 관계에서 동적인 관계로 변했다. over the city(도시너머)의 외연은 탄도체가 지나간 경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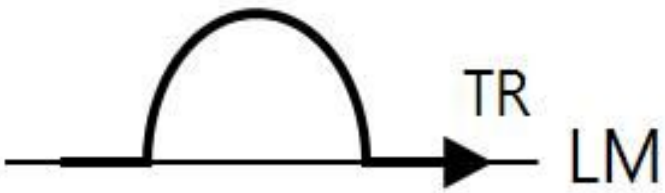
<그림2-2>over의 도식(2)

(c)의 문장 He walked over the street은 탄도체와 지표 사이에 접촉이 있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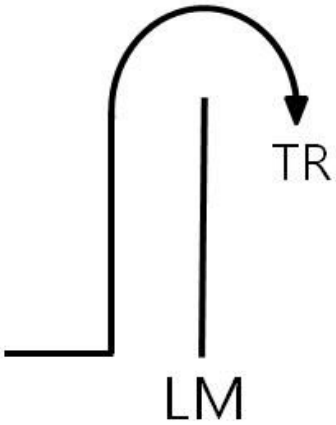
<그림2-3>over의 도식(3)

(d)의 문장 He walked over the hill은 문장 (c)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탄도체가 지나간 경로가 지표와 수직을 이루고 있으며 탄도체가 지표와 접촉해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요소 - 경로의 모양 - 가 도입되었다. 언덕을 걸어서 넘어갈 때 사람은 먼저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닿고 그리고 나서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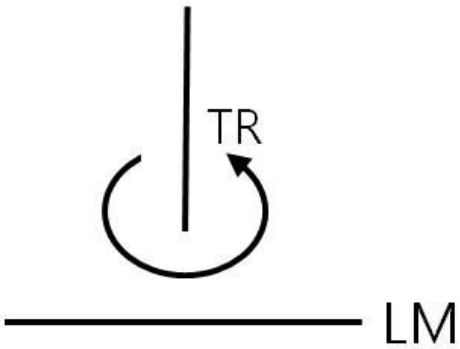
<그림2-4>over의 도식(4)

(e)의 문장 He jumped over the wall에서도 탄도체의 경로 - 구부러진 호 모양을 이룬 경로 - 는 여전히 눈에 띈다. 여기에서는 추가적 요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즉, 지표는 탄도체가 먼저 뛰어 오르고 그 다음에 하강하여 넘어야만 할 장애물로 생각된다. 그 다음의 몇 예문들은 문장 (d)에서 도입된 구부러진 탄도의 개념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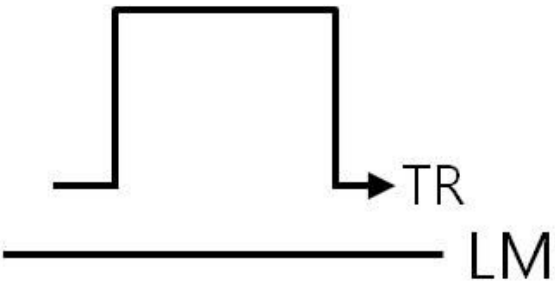
<그림2-5>over의 도식(5)

문장(f)에서 페이지를 넘길 때 페이지는 180도로 회전한다. 문장 (g)에 돌을 거꾸로 뒤집을 때도 마찬가지로 돌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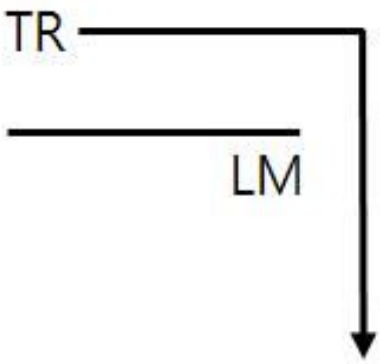
<그림2-6>over의 도식(6)

(h)의 문장 He fell over a stone에서 동사의 주어가 지나간 경로의 구부러진 정도가 더 제한(말하자면, 90도쯤 구부러짐)되어 있는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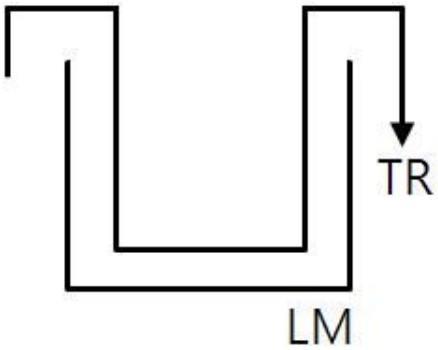
<그림2-7>over의 도식(7)

문장 (i)He pushed her over the balcony에서는 불행한 희생자가 지나간 경로가 구부러진 내리막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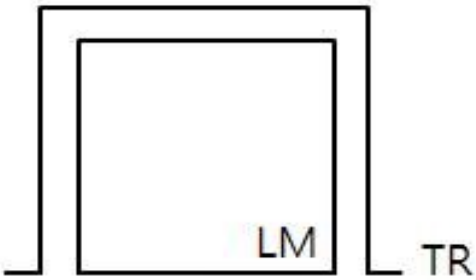
<그림2-8>over의 도식(8)

문장 (j)에서 물은 욕조의 테두리를 넘쳐흐를 때, 비슷한 모양의 경로를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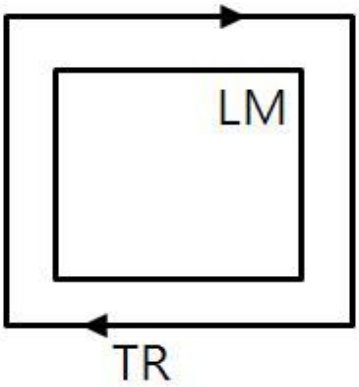
<그림2-9>over의 도식(9)

over의 추가적인 여러 사용은 문장 (p) He laid the tablecloth over the table 에서와 같이 덮기라는 관계를 지시한다. 문장 (p)에서 덮기는 완벽해져서, 지표는 관찰자가 볼 수 없게 된다.



<그림2-10>over의 도식(10)

문장 (o) The child threw his toys all over the floor 는 문장 (n)He walked all over the city와 같은 경우들에 연결된다.



<그림2-11>over의 도식(11)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 (a)에서 시작하여 여러 중간 단계의 연결을 거쳐 문장 (j)에 이르는 상당히 광범위한 연쇄를 확인해 왔다. 특히 문장 (d)에서 도입된 구부러진 경로의 개념이 언뜻 보기에는 문장 (a)의 over와 완전히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over의 한 무리의 의미들을 어떤 동기로 연관시키는 지에 관심을 두겠다.

위의 문장들에서 다른 의미 연쇄들을 식별할 수 있다. 문장 (d)에 돌아가 보자. 문장 (d)He walked over the hill은 탄도체가 지나간 경로를 지시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표는 그 경로를 따라서 있는 일종의 장애물이다. 관련된 사용이 문장 (k)He lives over the hill에 있다. 그 문장에서도 over는 장소 전치사이며 탄도체가 지나간 경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탄도체가 도달하기 위해서 관찰자가 추적해야만 할 경로의 끝점을 지시하는 데 반해, 지표는 그 여행자(즉, 관찰자)가 넘어야만 할 장애물로 해석된다. 문장(l)Come over here는 문장 (k)의 확장이다. over here는 다시 어떤 경로의 끝점을 지시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단지 그 경로는 청자에서 시작하여 화자의 영향권에서 끝나는 가상의 경로 일 뿐이다.

over의 덮기 의미는 문장 (a)로부터 시작하여 또 다른 절차를 거쳐 도출할 수 있다. 문장 (a)는 탄도체가 지표와 접촉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표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적당한 환경에서는 탄도체는 지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over는 above와 대조를 이룬다. 단지 단순히 내 집 위에 사는 사람들 (people merely living above me)이 내는 소음에 비해 내 집 바로 위에 사는 사람들(people living over me)이 내는 소음에 의해 방해를 받

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탄도체가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은 문장 (m) pull the lamp down over the table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그 결과로 식탁은 램프의 조명을 받게 된다.) 문장 (m)의 over를 전치사 above로 대치할 수 없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전치사 above는 탄도체와 지표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을 over의 여러 공간적 의미들 중 몇 의미들에 국한시켜 왔다. 그 외에도 over는 비공간적인 의미로도 아주 많이 사용된다. 은유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몇 실례들만 언급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over의 은유적 사용은 아래에서 예시된다.

(2). He has no authority over me. (그의 권위는 나보다 높지 않다.)
(조명원,나익주 1995: 132(17))

이 문장은 (1a)의 은유화이다.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는 공간적 지향이 아니라 힘의 관계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탄도체-지표 관계가 수직공간의 영역에서 힘 관계의 영역으로 전이됨을 보게 된다. 힘 관계는 전형적으로 수직 공간의 관점에서 개념화된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보다 '더 높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직적 위치를 지시하는 전치사가 커다란 힘을 지닌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over는 이 경우에 특히 합당한 전치사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탄도체가 지표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공간적인 지표와 매우 가까이 있음을 흔히 전달하기 때문이다. (2)에서 over가 above-탄도체가 지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는 전치사인 - 로 대치될 수 없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over의 더 심오한 은유적 사용은 (3)에 예시되어 있다.

(3). He got over his parents' death.
(그는 부모의 죽음을 이겨냈다.) (조명원,나익주 1995: 135(18))

이 문장은 over가 장애물을 넘는 경로를 지시하는데 사용된 문장 (1e)와 관련이

있다. 은유화가 가능한 것은 삶 자체가 흔히 하나의 경로로 해석되고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겪은 여러 힘든 삽화들은 삶의 경로상의 장애물들로 해석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문장 (1k)에 근거하여 over는 또한 어떤 활동이나 사태의 종결 점을 지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아래 (4)에 예시되어 있다.

(4) a. Our troubles are over. (우리의 고민은 끝났다.)
b. The lesson is over. (수업이 끝났다.) (조명원,나익주 1995: 136(19))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over[1]의 다양한 의미는 크게 네 개의 중요한 무리를 이룬다.

첫째, 어떤 측면에서는 탄도체의 위치가 더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의미들이 있다. 둘째,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어떤 종류의 덮기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다. 셋째, over는 구부러진 호 모양의 움직임을 지시한다. 넷째, 마지막 무리의 의미들은 어떤 경로의 끝점과 관계가 있다. 동시에 over의 각각의 개별 의미는 그 자체가 고유한 원형 구조를 가진 범주이다.

1) over에 대한 Brugman의 분석은 계속해서 관심을 끈다. Vandeloise(1990), Deane(1993), Dewell(1994), Tylor & Evans(2001)을 보라. 또한 네덜란드어의 전치사 over에 대해서는 Geeraerts(1992)를 보고 영어의 on및 over와 비교되고 대조되는 이탈리어의 su, sopra에 대해서는 Taylor(1998)을 보라.

Ⅲ.원형이론

원형(Prototype theory)[2] 은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 '이상적' '좋은' 보기를 말한다. 곧 원형적인 보기는 중심적 보기이며, 비원형적인 보기는 주변적 보기가 된다.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은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하기 보다는 그들 사이의 유사성의 중심적 역할로 설명되어 진다. 이것을 친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3] 이라하고 이러한 구조를 공유한다. 여기서 친족유사성 또는 가족닮음이란 가족들 사이에는 체격, 용모,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 다양한 닮음이 존재하지만, 특정한 자질들을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몇몇 자질만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것이다. 비트겐스타인은 똑같은 현상이 낱말 '게임'의 경우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곧 판 게임, 카드게임, 공게임,

2) '원형이론'은 '범주는 원형을 중심으로 가족의 닮음처럼 연쇄적인 망을 이루며, 그 경계는 불분명하며, 범주의 구성원 간에는 원형에서부터 주변에 이르기까지 비대칭성을 이루고 있다.'는 '원형범주화(prototype categorization)'를 성립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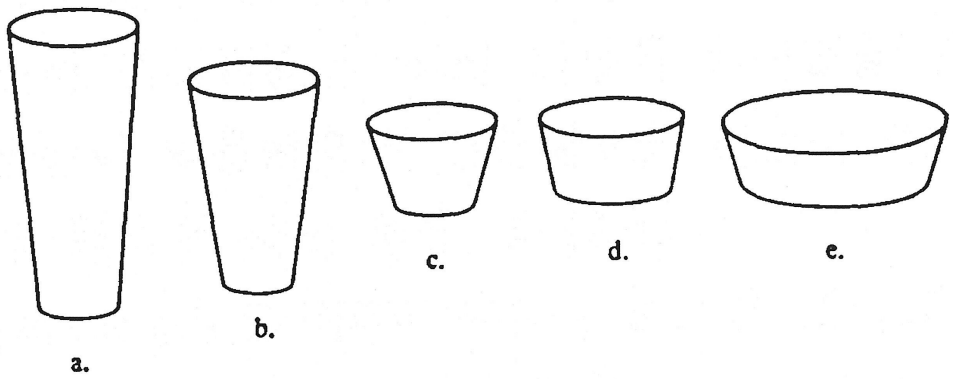
3) Wittgenstein은 단의적인 원형 범주의 어떤 특성을 지시하기 위하여 가족유사성 은유를 사용했다. 여기서 가족유사성을 부르고 있는 것은 Lakoff(1987)의 '방사성 범주'에 해당한다.

테니스게임, 올림픽게임 등에서 모든 게임이 다른 것과 약간의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그들 모두를 연결 짓는 요소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의 복잡한 망을 '가족닮음'의 은유로 표현하고, '게임'이 가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지심리학에서의 최근 중요한 발견은 범주화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에 낱말의 경계에는 모호한 가장자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모호한 가장자리 현상' (fuzzy)이다. 즉 범주의 목록 중에는 더 중심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주변적으로 보여 질수 있다. 그리고 중심성의 정도는 특별한 범주에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방식에 달려있다.

1. 라보프의 실험

라보프 의 실험에서 그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그릇모양의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각각을 '컵' '꽃병' '주발'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다.



<그림3-1> 연속체의 모호한 가장자리 (임지룡 1993: 47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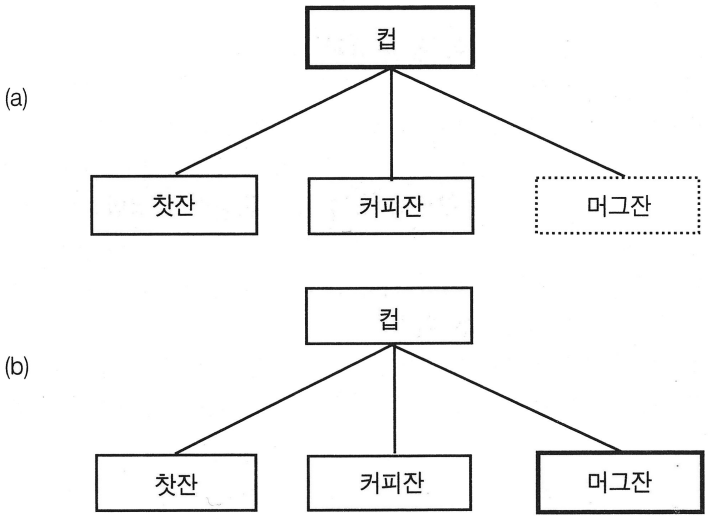
학생들은 모두 어떤 모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들 모두 손잡이가 없는 높고 얇은 그릇을 꽃병으로 간주했고, 낮고 평평한 것은 주발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들은 꽃병과 주발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아주 당황했다. '그것이 꽃병이었을까 아니면 컵이었을까? 그리고 꽃병 모양과 주발 모양에 손잡이가 붙여졌을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서로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개개인 자신들의 반응에 있어서도 모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컨대, 특정한 그릇에 대하여 텅 빈 상태로 제시 했을 때는 주발이라고 하였지만, 그 속에 무엇을 채워놓았을 때는 반응이 달랐다. 또한 무언가를 먹을 때 스푼을 사용해서 먹으면 그것은 주발로 간주했다.

이처럼 컵이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되어 지더라도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하다기 보다는 그들 사이에 있는 유사성에 근거를 둔다고 한다면 그들은 서로 명백히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컵과 머그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다음 그림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

<그림3-2> 컵과 머그잔 사이의 관계 (임지룡 2005: 149 그림7-9)

그 상황은 차 마시기와 커피 마시기가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수 그릇과 연관되도록 사회적 관습이 확립된 사회에서는 적절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찻잔과 커피잔은 현저하고 기본층위 개념인 컵의 대조되는 실례일 것이다. 머그잔은 그 범주의 그다지 현저하지 않은 다소 주변적인 실례일 것이다. 머그잔은 특별한 종류의 음료수를 마시는 것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습적 경우와 연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 방식이 바뀜에 따라 머그잔의 현저성이 증가해서 그것은 거의 표준 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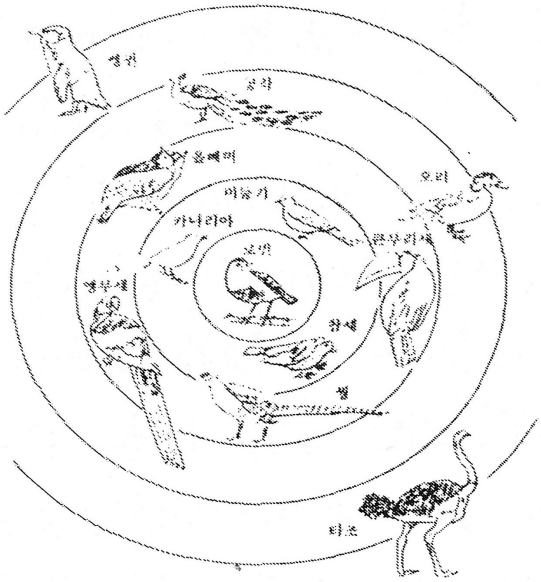


수 그릇이 되고 기본층위 위상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이 또한 찻잔 속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생활방식과 문화적 특성의 근거를 둔다면 그들은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로쉬의 실험

원형적 보기의 예를 *로쉬*의 실험에서 또한 살펴 볼 수 있다.
로쉬 는 '새'라는 범주에서 사람들이 더 새다운 새와 그렇지 않은 새로 파악하는 경향성을 조사했다. *로쉬*는 2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도들에게 '가구, 과일, 차량, 무기, 채소, 목수의 연장, 새, 운동, 장난감, 의류'와 같은 10개의 범주명칭을 선정하고, 각각의 범주 밑에는 약 50개 정도의 목록, 예를 들어 '과일'의 경우라면 '오렌지, 레몬, 사과, 복숭아, 배, 멜론'등 쉽사리 생각해 낼 수 있는 보기를 주었다. 이 설문지에 대해 피 실험자들은 각각의 원소들이 그 범주의 얼마나 좋은 보기인지 등급을 매기도록 요청받았다. 즉 어떤 것을 등급 1로 매기면 학생들이 우수한 보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4는 보통을 나타내고, 7은 매우 하잘 것 없는 것을 나타낸다.

이 실험의 결과는 피 실험자의 대다수가 범주의 매우 좋은 보기라고 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 즉 '로빈'이 새의 가장 좋은 보기이며, '완두콩'이 채소의 가장 좋은 보기이며, '의자'가 가구의 가장 좋은 보기라고 생각했다.



<그림3-3> 새다움의 등급 (임지룡 1993: 49 그림3)

곧, '새'의 범주에서 로빈이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지며, 참새, 카나리아, 비둘기 등은 그 다음으로 등급이 높게 나타났으며, 앵무새, 꿩, 큰부리새, 올빼미는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오리, 공작은 좀 더 낮았고, 타조, 펭귄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가장 맨 끝에 박쥐가 왔는데, 박쥐는 새답지 않은 새로 간주되었다.

로쉬의 실험에 나타난 각 범주의 원형적인 보기, 보통의 보기, 비원형적인 보기를 둘씩 들면 다음과 같다.

<표 Ⅰ-1> 범주의 원형적인 보기

의미범주	원형적보기	보통 보기	비원형적 보기
가구	의자, 소파	식기선반	선풍기, 전화
과일	오렌지, 사과	라임	피클

차	자동차	지하철	엘리베이터
무기	총, 피스톨	채찍	잔, 구두
채소	완두콩, 홍당무	양파, 감자	땅콩, 쌀
목수연장	톱, 망치	판재, 설계도	가위, 기중기
새	로빈, 참새	황금방울새	펭귄, 박쥐
운동	축구, 야구	수상스키, 스케이팅	카드놀이, 일
광욕장난감	인형, 팽이	퍼즐, 소방차	테니스채, 책
의류	바지, 셔츠	구두, 턱시도	팔찌, 지팡이

(임지룡 1993: 50)

위 표에서 보듯이 실험에 참여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자, 소파' 가 가구의 가장 좋은 보기이며, '오렌지, 사과'는 과일, '자동차'는 차, '총'은 무기, '완두콩'은 채소, '톱'은 목수의 연장, '로빈, 참새'는 새, '축구'는 운동, '인형'은 장난감, '바지'는 의류의 각각 좋은 보기라고 생각했다. 그 반면에 '선풍기, 전화'는 가구로서 부적절하며, '땅콩, 쌀'은 채소, '테니스채, 책'은 장난감, '팔찌나 지팡이'는 의류로서 부적절하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잔, 구두'는 무기의 좋은 보기가 아니며, '가위, 기중기'는 목수의 연장, '펭귄, 박쥐'는 새, '카드놀이, 일광욕'은 운동의 좋은 보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형을 이루는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이와 관련하여 레이콥(1986: 33-6, 1987: 77-90)이 제시한 원형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전형적 보기(typical example)이다. 전형적 보기의 특성은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대중적인 논의거리도 아니며, 한 사람의 생애 동안 변화를 겪지도 않는다. 이러한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참새와 까지는 전형적인 새이다.

-사과와 귤은 전형적인 과일이다.
-진달래와 개나리는 전형적인 꽃이다. (임지룡 1993: 53)

일반적으로 추론을 하게 될 경우, 전형적인 보기에서 비전형적인 보기를 추론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또한 *로쉬*(1975)가 밝힌 자연범주의 원형은 전형적 보기에 속한다.
둘째, 사회적 스테레오타입(social stereotypes)이다. 이는 전형적인 보기와 대조를 이루는데, 전체로서 한 범주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보통 의식적이며, 대중적인 논의의 주제가 된다. 셋째, 이상적 보기(ideals)이다. 많은 범주들은 이상적 보기에 의해서 이해된다. 우리들은 실제로 이상적 결혼[4], 가정, 배우자, 직업 등에 관한 문화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다.

Ⅳ. 환유와 은유

앞에서 원형이론의 의미망인 RING의 분석을 살펴보았다. RING의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개념은 의미의 관련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여러 다른 의미들이 연결되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의미의 관련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다른 의미들을 연결시켜 주는 수단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과정, 즉 환유와 은유를 살펴 볼 것이다.
환유와 은유는 전통적인 수사학에서 친숙한 개념이다. 은유는 특히 인지지향적인 언어학자들의 많은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은유 못지않게 중요한 현상인 환유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보자.

4) 미국인들의 결혼에 대한 이상적인 모형으로는 배우자들의 목표가 성취된 '성공적인 결혼', 당사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결혼',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될 것 같은 '강한 결혼'등이 있다. (Lakoff, 1987: 87참조)

1. 환유(Metonymy)

환유는 현재나 예전이나 언어학 문헌에서(은유와 비교할 때)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먼저 전통적인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려한다. 전통적 수사학은 환유를 비유적 표현이라고 정의하는데 어떤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이 있는 다른 개체를 사용하는 현상이다.

(5) a. Does he own any Picasso? (= Picasso's work)
(그는 피카소 몇 점을 가졌니?) (=피카소의 작품)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유명한 창조적 예술가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예술가의 예술성 높은 창작물을 지시할 수 있다.

b. The kettle's boiling. (= The kettle of boiling water)
(주전자가 끓고 있다.) (=끓는 물의 주전자)
c. Dickens is on the top shelf. (= Dickens' work)
(디킨즈가 맨 위 선반에 있다.) (= 디킨즈의 작품)

d. An agreement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
(= The government agency)
(워싱톤과 모스크바 사이의 협상) (= 워싱톤과 모스크바의 정부기관)
(조명원, 나익주 1995: 148)

우리는 또한 어떤 개체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흔히 그 개체가 지닌 구조의 여러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자동차를 세차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자동차의 바깥 면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동차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는 말을 할 때는, 자동차의 커버가 씌워진 차내를 부각시킨다. 반면에 자동차를 수리한다고 말할 때는, 자동차의 동력 부품에 초점을 맞춘다.
이 실례들에서 주장하려는 바는 자동차(car)가 다의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

동차의 의미가 '맥락상에서 조율된다'는 것이다.

(6) They washed, vacuum, cleaned and serviced the car.
(그들은 그 자동차를 세차하고, 진공청소기로 세척하고, 수리했다.)
(조명원, 나익주 1995: 149)

또 하나의 실례는 낱말 mother(어머니)이다. mother가 동사(to mother a child) 아이를 기르다 로 사용될 때는, 양육 영역이 원근법의 적용을 받아 부각되는 반면에, 나머지 다른 영역들 (유전영역, 출산영역, 가계영역)은 배경으로 남는다. 따라서 mother를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든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어도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다. 동사 mother는 단순히 "어머니처럼 사려 깊은 애정으로 돌보다"를 뜻한다.

(7) a. He's looking for a girlfriend who will be a mother to him.
(그는 어머니가 될 여자 친구를 찾고 있다.)
b.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조명원, 나익주 1995: 152)

mother의 다른 비문자적 사용들은 전형적으로 단일 영역에만 원근법을 적용하여 그 영역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a)도 또다시 양육 영역에 원근법을 적용하지만, 그와 반면에 b)는 출생 영역에 원근법을 적용한다.

앞으로 의미 확장이 선호하는 패턴들-즉, 어떤 특정 언어의 어휘부 전반에 걸쳐서 계속 출현하고 또한 여러 언어들에서 많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살펴보자. 앞에서 예시된 over의 공간적인 의미들의 대다수는 환유를 통해서 관련된다. 공간 전치사들의 다의성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 관계들이 그 다의성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선, 경로(path)와 장소(place)라는 개념을 검토해 보자. 움직이는 개체가 따라가는 경로와 그 경로 상에 위치한 무한히 많은 점들 중의 임의의 한 점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환유적 관계가 있다. 우연히도 어떤 경로를 지시하는 언어 표현이 흔히 어떤 장소도 또한 지시할 수 있다.

(8) a. The helicopter flew over the city. (path)
(헬리콥터가 도시 너머로 날아갔다.) (경로)
b. The helicopter hovered over the city. (place)
(헬리콥터가 도시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 (장소)
c. He drove by the post office. (path)
(그는 우체국 옆으로 차를 몰고 지나갔다.
d. He lives by the post office. (place)
(그는 우체국 옆에 산다.) (장소)
e. The road passes under the railway live. (path)
(길이 철길 밑으로 지나간다.) (경로)
f. The dog is under the table. (place)
(개는 식탁 밑에 있다.) (장소) (조명원, 나익주 1995: 154)

2. 은유 (Metaphor)

전통적으로 은유는 "정상적인" 언어사용에서 일탈된 장식적 요소로서 수사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은유적 표현에서 호수라는 단어가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을 은유라 하였다. 그리고 은유의 작용은 은유적 표현(예, 호수)과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예, 마음의 상태)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한 유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은유란 참신하고 시적인 언어적 표현으로 그 속에 사용된 어떤 단어가 그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유사한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

다. 그러나 Lake & Johnson(1980)의 Metaphor we Live By 의 출간을 기점으로 인지언어학의 한 핵심 분파에서는 Lakeoff를 중심으로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5]를 주창하며 그러한 전통적 견해는 은유에 대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은유란 무엇인가?, 은유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와 같은 은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은유의 전통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은 다음 표와 같이 구별 될 수 있다.

<표 2-1> 은유의 전통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

전통적 관점	현대적 관점
은유는 단어의 속성, 즉 언어적 현상이다.	은유는 단어의 속성이 아니라, 개념의 속성이다.
은유는 미적, 수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은유의 기능은 예술적, 미적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은유는 단어의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사용이며, 따라서 특별한 능력을 지녀야 잘 사용할 수 있다.	은유는 보통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박정운 2001: 86)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는, 참신하고 시적인 표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은유 연구들과는 달리 인상의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관습화된 은유적 표현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은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은유의 본질은 사고에 있으며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을 통해서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장치라는 것은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인생에 대해 말할 때 (9)에 있는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

5) 이 개념적 은유 이론은 레이코프(Lakoff)와 존슨(Johnson)이 주도적으로 1980년 이래로 개발해 오고 있다. 은유의 의미 확장에 기여에 대한 논의는 Norvig & Lakoff(1986), Dwell(1994), Lakoff & Johnson(1999)참조

(9) Life is a journey. (인생은 여행이다.) (박정운 2001: 87)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여행을 한다. 학교에 가는 것도 하나의 작은 여행이고 또 일이나 휴식을 위해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다. 이러한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여행은 출발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이고, 이동을 하다 보면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이정표도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이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여행의 개념구조를 도식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정리된 여행이라는 개념구조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조화하고 이해한다. 예를 들어,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여행자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은 여행의 목적지로 은유적으로 개념화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인생과 여행의 상응관계들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인생과 여행의 상응관계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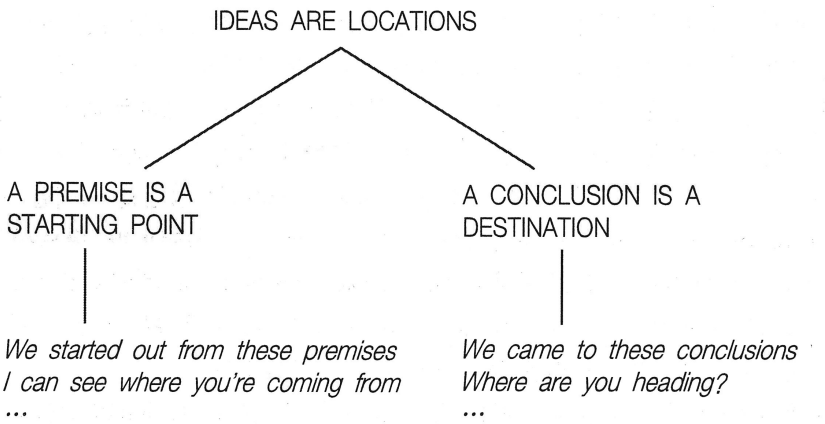
인생		여행
삶을 살아가는 주체	------	여행자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목표들	------	여행의 목적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	길
삶에서의 난관	------	장애물
삶의 조언자	------	가이드
인생에서의 선택점	------	갈림길
삶의 진행 정도를 알리는 것들	------	이정표

(박정운 2001: 88)

즉, 은유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영역들이 관여하고 그 중 하나는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영역(여기서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이해의 촉매 역할을 하는 개념영역(여기서는, 여행)이다. 전자를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 하고 후자는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은유는 목표영역과 근원영역 사이의 상응관계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도식으로서 개념적 은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A conclusion is a destination(결론은 목적지이다)과 같은 개념적 은유와 We arrived at the conclusion(우리는 결론에 도달했다), Where are you heading with that argument?(당신은 그 주장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주장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자 합니까?)와 같은 특정한 은유 표현 사이의 관계는 인지문법으로 쉽게 다룰 수 있다. 그 관계는 우리에게 친숙한 도식과 실례사이의 관계이다. 개념적 은유는 그것의 실례인 은유표현의 도식이다.



<그림4-1> 도식의 개념적 은유 (임지룡 2005: 554 그림24-1)

위에서처럼, 한 도식에는 실례로 하위도식이 있을 수 있다. 개념적 A conclusion is a destination(결론은 목적지이다)라는 그 자체는 더 도식적인 은유인 Ideas are location(생각은 위치이다)의 실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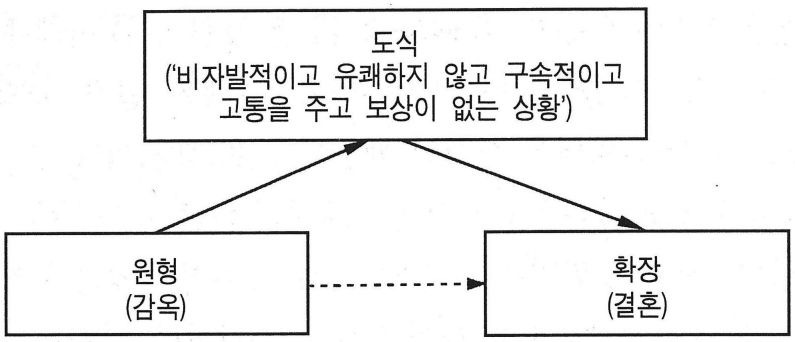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Mary's marriage became a jail.(메리의 결혼은 감옥이 되었다.)

이 문장은 Ideas are location은유에 대한 정교화이다. 결혼은 '글자 그대로' 감옥

이 아니다. 은유적으로 해석될 때만 결혼은 감옥이다.

그러나 Glucksberg & Keysar는'실제' 감옥과 결혼으로 구성된 한 범주를 설정한다고 한다. 이 새로운 범주는 '비자발적이고 불쾌하고 구속적이고 고통스럽고 보상이 없는 상황의 도식이다. 감옥과 결혼은 이 범주의 실례이다. 결혼이 '감옥이 되었다'는 주장은 '글자그대로' 참일 수 있다.



<그림4-2> '결혼은 감옥'의 도식 (임지룡 2005: 596 그림26-2 상위범주는 감옥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은유적 의미'의 도식 참조)

V. RUN과 인지 의미론적 접근
(RUN and Cognitive Semantic Approach)

1. RUN의 원형적 의미.

아래 예문을 통해 RUN의 원형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a. Can you run as fast as Mike? (너는 마이크처럼 빨리 뛸 수 있니?)
b. The child run to his mother. (아이는 엄마 품으로 달려갔다.)

RUN의 가장 원형적인 의미는 사람이 두발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과정이다. 이 의미가 아마 가장 최초에 습득되는 의미일 것이고 중립적 맥락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미이다.

(11) a. The car ran down the hill.
(그 차는 그 산 아래로 달려갔다.)
b. The bicycle ran up the hill.
(그 자전거는 그 산위로 달려갔다.)
c. The train ran on.
(그 기차는 계속해서 달렸다.)

위의 예문에서는 동물의 경우는 두 발이 아니라 네 발을 가지고 있다. 동물은 네 발을 써서도 빠른 동작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나아가서 RUN은 발이 아니라 바퀴를 써서 움직이는 데에도 확대되어 적용된다.

(12) a. The ship ran very fast.
(그 배는 매우 빠르게 달렸다.)
b. A breeze ran through the trees.
(산들바람이 그 나무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c. The salmon are running. (연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다시 RUN은 다리나 바퀴가 없이 어떤 개체가 빨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데에도 적용된다. 이 의미는 다리나 바퀴의 차이는 무시하고 빠른 움직임을 나타낸다. 위의 RUN은 발이나 바퀴 없이 빠르게 움직인다. 다음 주어는 액체이다. 주어는 빠르게 움직인다.

(13) a. Tears ran down my cheek.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

b. Water was running all over the bathroom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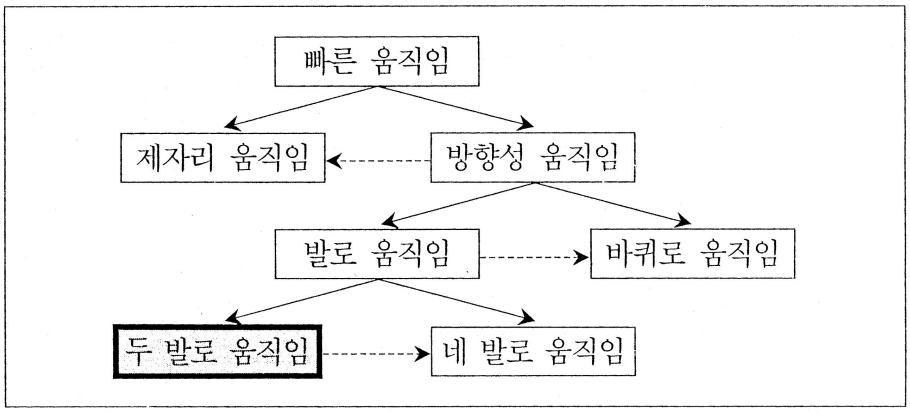
(물이 욕실바닥에 넘쳐흐르고 있었다.)

c. Rivers run into the sea.

(강들은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d. Blood runs from a cut.

(피가 베인 자리에서 흐른다.) (이기동 1995: 620-636)



<그림5-1> RUN의 원형적 그림 (이기동 2006: 632)

간추리면, 위 그림에서 [두 발로의 빠른 움직임]은 [네 발로의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이 둘은 다시 [발로의 움직임]의 도식의 바탕이 된다. 이것은 다시 [바퀴의 움직임]으로 확대된다. [발로의 움직임]과 [바퀴로의 움직임]은 다시 [방향성의 움직임]의 도식을 낳고, 이것은 [비방향성 움직임]으로 확대된다. 이 두 움직임이 추상화되어 [빠른 움직임]의 개념을 낳는다.

2. RUN의 의미 확장

RUN의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위에서 설명한 환유를 통해 RUN이 어떻게 의미 확장을 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4) a. Rivers run into the sea. (강들은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b. Water was running all over the bathroom floor.
(물이 욕실바닥에 넘쳐흐르고 있었다.)
c. The child's nose ran. (그 아이의 코가 흘렀다.)
d. My eyes ran. (나의 눈물이 흘렀다.) (이기동 1995: 628)

위의 의미는 전체가 부분을 나타내는 환유의 실례이다. 다음 주어는 환유적 으로 쓰여서 코와 눈과 관련된 액체를 가리킨다. '액체의 움직임'은 '강이 흐르다', '물이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환유를 통해 '콧물이 흐르다'와 '눈물이 흐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코가 흐르다'라는 의미에서 '콧물이 흐르다'라는 의미로 확장된 것이고 '눈이 흐르다'라는 의미에서 '눈물이 흐르다'라는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자 이제 원형이론과 환유에 이어 은유를 통해 RUN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 되어 질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5) a. Don't leave your car running.
(너의 자동차 엔진을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라.)
b. The factory has ceased running. (그 공장은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c. Does your watch run well? (너의 시계가 잘 돌아가느냐?)
d. We couldn't get on the motor to run.
(우리는 그 모터를 돌아가게 할 수가 없었다.) (이기동 1995: 630)

위의 원형의미에서 빠른 움직임은 '이동은 움직임이다'의 은유가 적용되어 'n개의 발로 움직이는 장소이동', '기계의 움직임', '액체의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기계의 움직임'은 자동차의 엔진을 움직이다 또는 기계를 돌아가게 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은유가 적용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자.

(16) a. He ran with all his force to the goal. (그는 결승점을 향해 뛰었다.)
b. The Democrats ran Bill for congress.
(민주당은 빌을 의회후보고 뛰게 했다.)
c. They ran Baker for the mayor. (그들은 베이커를 시장으로 출마시켰

다.)

(이기동 1995: 635)

RUN의 원형의미인 '두발로 움직이는 빠른 장소이동'은 동물과 인간이 발을 통해 움직이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요소로 확대 되어질 수 있다. 동물은 네발로 움직이는 빠른 장소이동과 경쟁을 하면서 '말은 사람보다 빨리 뛸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 또한 두발로 움직이는 장소이동을 하면서 '너는 마이크처럼 빨리 뛸 수 있니?' 의 경주라는 순수하게 뛰는 의미에서의 경쟁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뛰는 행위가 인간들 사이의 경쟁의 행위로 확장되고 '달리기는 경쟁이다'라는 은유를 통해 경쟁적인 정치활동의 후보자라는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은 빌을 의회후보로 뛰게 했다'와, '그들은 베이커를 시장으로 출마시켰다'는 의미는 인간의 뛰는 경쟁행위가 정치활동에 입후보로 출마하면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즉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의 뛰는 행위로 확장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지위는 달리기의 목표지점과 같고 정치적 지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리기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발로 움직이는 빠른 장소이동'은 '활동은 움직임이다'라는 은유적 확장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17) a. He lets his children run wild.
(그는 그의 아이들을 난폭하게 굴도록 내버려 둔다.)
b. His children are running wild. (그의 아이들이 난폭하게 날뛰고 있다.)
c. Popular feeling is running high. (여론이 격해지고 있다.)

(이기동 1995: 625)

두발을 통해 움직이는 행위는 '아이들이 난폭하게 뛰어다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도 움직이는 행위로 확장되어 '여론이 격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확장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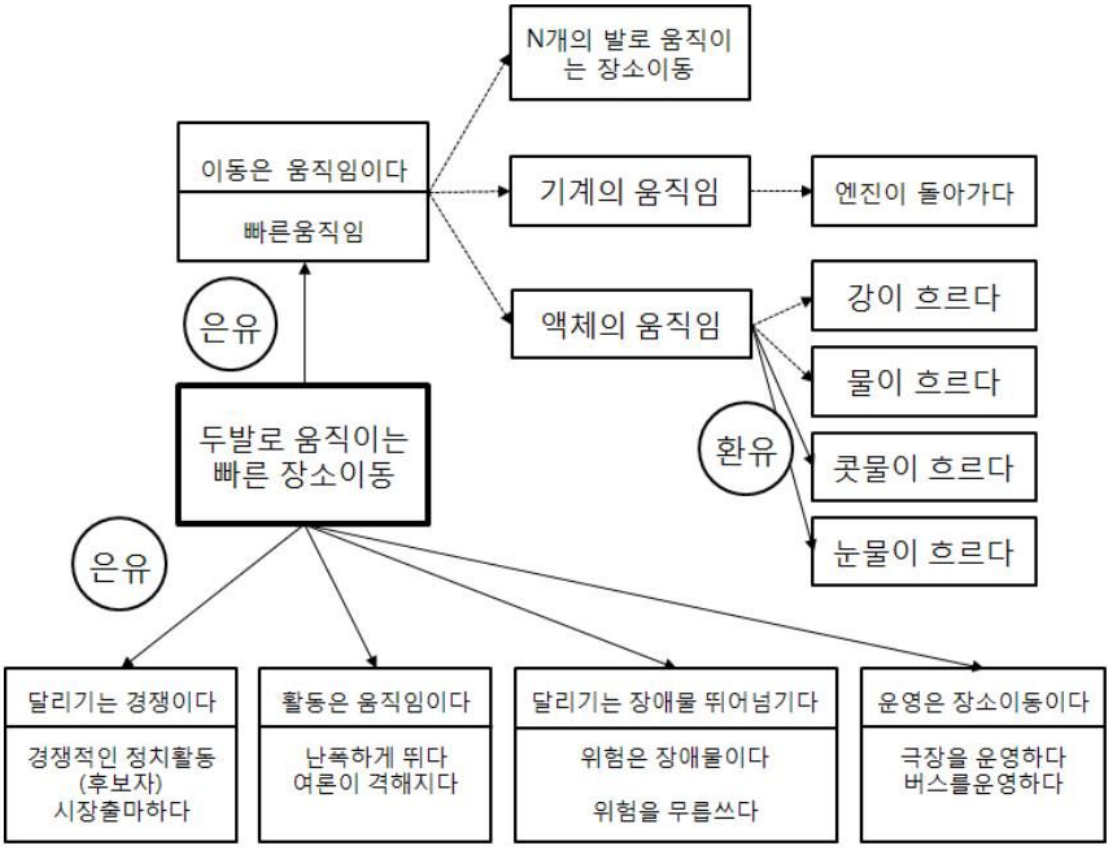
또 다른 은유의 예를 살펴보자.

(18) a. They ran the risk of being killed. (그들은 죽게 될 위험을 무릅썼다.)
b. They ran the danger of being fired. (그들은 해고되는 위험을 무릅썼다.)
c. She ran the chance of being suspected of theft.
(그녀는 도둑질의 혐의를 받는 그 위험을 무릅썼다.) (이기동 1995: 634)

두발로 움직이는 장소 이동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달리기는 장애물 뛰어넘기다'의 은유가 적용되면서 장애물이라는 위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위험은 장애물이다'의 은유가 또 한 번 적용되면서 '죽게 될 위험을 무릅썼다'와 '해고되는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것으로 확장 될 수 있다.
이어서 은유적 확장을 통해 확대된 RUN의 예문을 살펴보자.

(19) a. He run a business. (그는 사업을 운영한다.)
b. The company run a bus between the two cities.
(그 회사는 두 도시 간에 버스를 운영한다.)
c. She runs the shop entirely by herself.
(그녀는 가게를 혼자서 꾸려가고 있다.) (이기동 1995: 626)

움직이는 행위는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달리거나 뛰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행위로 확대된다. 사업체, 팀, 조직의 대표는 움직이는 행위로서 경영, 관리, 감독을 하는 총책임의 운영자 역할을 한다. 여기에 '운영은 장소이동이다'라는 은유적 확장을 통해 '그는 사업을 운영 한다'와 '그 회사는 버스를 운영 한다'라는 의미로 확대된다.
위의 원형의미와 의미 확장을 통한 RUN의 의미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그림5-2> RUN의 의미망

Ⅵ. 결 론

인지주의 의미론적 접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들었다. 첫 번째로 원형이론(Prototype Theory)과 두 번째, 은유(Metaphor)와 세 번째, 환유(Metonymy)가 있다. 이 방법들로 RUN의 다양한 뜻들을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세 가지 이론의 접근으로 다의어 RUN을 분석했다.

Ⅱ장에서는 동사 의미 분석으로 한 낱말 아래에 실린 하나의 뜻은 다른 뜻과 별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의미로 보이지만 의미의 망을 통해 관련성이 있는 뜻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해 보았다. 그래서 명사 RING과 전치사 OVER의 예를 들어 그 의미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살펴보았다. 명사 RING의 가장 원형적인 의미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이지만 코걸이를 가리키는 데에도 쓰인다. 또 여기서 둥근 모양의 모양을 추출하고 둥근 물체의 개념을 추출하면 여러 의미로 확장 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RING이 나타내는 여러 의미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되어서 망 조직을 이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치사 OVER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분석들은 거의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전치사 OVER의 연관된 의미들을 의미망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수행되었다. 이는 다의성에 대한 인지 의미론적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원형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라보프의 실험과 로쉬의 실험을 살펴보고 원형적인 보기가 중심적 보기이며, 비원형적인 보기는 주변적 보기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 RUN의 원형의미론의 의미망을 분석해 보았다.

Ⅳ장에서는 환유와 은유를 통해 RUN의 의미망이 확장되는 표현을 살펴보았다. 어떤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이 있는 다른 개체를 사용하는 현상인 환유와 한 개념적 영역을 다른 개념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인지과정인 은유를 통해 RUN의 원형적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보았다.

Ⅴ장에서는 RUN이란 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지의미론에서 단어나 구조들이 기본을 이루는 원형의미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은유적 확장, 환유적 확장들을 통하여 의미망을 넓혀간다는 주장을 통해 RUN을 분석했다. RUN의 원형의미인 '두발로 움직이는 빠른 장소이동'은 'n개의 발로 움직이는 장소이동', '기계의 움직임', '액체의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환유를 통해 '콧물이 흐르다'와 '눈

물이 흐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또한 은유를 통해 '달리기는 경쟁이다'는 경쟁적인 정치활동의 후보자로 확장되고 '활동은 움직임이다'는 '아이들이 난폭하게 뛰어다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위험은 장애물 이다'는 '죽게 될 위험을 무릅썼다'로 '운영은 장소이동이다'는 '사업을 운영 한다'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상에서 인지주의 의미론적 접근은 다의어의 뜻들을 원형에 대한 관계로 설명해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듯 다른 다의어들도 그 원형의미와 확장된 의미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연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공간 전치사 *over*의 다의성", 『새한영어영문학』2, 2008.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1992.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2005.

김종도. 『인지언어학적 원근법에서 본 은유의 세계』. 한국문화사, 2004.

_____. 『인지문법적 관점에서 본 환유의 세계』. 경진문화사, 2005.

노양진, 나익주. 『삶의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나익주. "다의어 *line*의 의미 구조 분석", 『담화와 인지』8-2, 담화 인지언어학회, 2001.

박정운. "개념적 은유 이론", 『언어와 언어학』28,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01.

_____. "개념적 은유와 시적 은유", 『시학과 언어학』7, 시학과 언어학회, 2004

심영숙. "원형 의미 확장에 따른 어휘의 다의성 분석: 한국어 객체이동동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7.

이건환. "동사 '잡다'의 의미확장", 『언어과학연구』22, 언어과학회, 2002.

이기동. 『영어 동사의 의미』. 한국문화사, 1995.

_____. "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분석",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77

_____. "인지문법", 『현대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1994.

_____.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2000

_____ & 이정화. 『인지문법에서 본 영어동사 사전』. 한국문화사, 2006.

이종열. "'가다'의 다의성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3, 한국어의미학회, 1998.

이종열. 『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2003.

임지룡. "원형 이론과 의미의 범주화", 『국어학』23, 국어학회, 1993.

_____. "은유의 인지적 의미특성", 『국어교육연구』27, 국어교육연구회, 1995.

_____.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한국언어연구회, 1996.

_____.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_____. 『인지문법』. 한국문화사, 2005.

_____.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20, 한국어 의미학회, 2006.
_____.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20, 한국어 의미 학회, 2006.
_____. "인지의미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21, 우리말학회, 2007.
_____. "신체화에 기초한 의미 확장의 특성 연구", 언어과학회, 2007.
정희자. "삶과 환유", 『외대논총』19-4, 부산외국어대학교, 1999.
조명원&나익주.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1995.
Cruse, D. A. *Meaning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Dwell, R.B. *Over again: Image-schema transformations in semantic analysis*, Cognitive Linguistics, 1994.
Evans, V. & M. Green.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8.
Fillmore,C. *Frame Semantics*,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 1982.
Goldberg, A.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Heine, B.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Lakoff, G. *Coginitive Semantics*, in U. Eco, Santambrogio,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Lakoff, G. & M. Johnson. *Metaphor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_____.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
Langacker, R.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_____.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i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de Gryuter, 2002.

_____.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New York, 1999.

Lee, D.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Miller, G. *Semantic Relations among words*, Cambridge, Mass: MIT Press, 1978.

Rosch, E.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 192-233, 1975.

_____. & Lloyd, B.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lale, N.J.: Erlbaum, 1978

_____. & Mervins, C.B. *Family Resemblances*: Studie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7, 573-605, 1975.

_____.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E. Rosch& B. Lloyd,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N.j, 1978.

Taylor, J. R.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s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95.

_____.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Harlow, London: Prentice Hall, 1958.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7819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인영 한문 :金仁映 영문 : Kim Inyoung				
주 소	광주 동구 소태동 수정맨션 나동502호				
연락처	E-MAIL : k227869@nate.com				
논문제목	한글 : 다의어 RUN의 의미분석 영어 : *Run* and its Polysem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년 월 일

저작자: 김인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